

지금 이 사람

—  
공감과 실효를 위한 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의 세계화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다

—



답변자: 박갑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질문자: 권창섭(홍익대학교 강사)

때: 2015. 10. 13.

곳: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학과 학과장실

언어는 습득의 대상인 동시에 학습의 대상이다. 우리가 언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습득의 과정이 존재하는 한편, 어떤 언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과정 역시 존재한다. 이 언어 학습의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그 학습의 과정을 더욱 풍요롭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가 언어 교육학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만약 한국어라면 국어 교육학 혹은 한국어 교육학이 된다.

이 국어 교육학과 한국어 교육학, 그리고 국어 문체론 분야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업적을 남겨 오신 분이 있다. 약 60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 400여 편의 논설을 발표하며 이 분야에 큰 공헌을 하신 박갑수 선생님이 바로 그 분이다. 박갑수 선생님은 이러한 업적과 공헌을 인정받아 2015년 세종문화상 학술 부문을 수상하셨다. 큰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선생님을 모시고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퇴임 후에도 저술·단체 활동 등 노익장 과시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신지요?

**박갑수** 네. 괜찮은 편입니다.

**권창섭** 그간 국어학 및 국어 교육학 발전에 힘써 오신 공로로 올해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갑수**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상도 아닌 세종문화상 학술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받고 싶

은 상이었습시다.

**권창섭**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999년도에 퇴임하셨지요? 퇴임 이후에도 바쁘게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갑수** 바빴지요. 우선 현직에 있을 때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던 저작물들을 책으로 묶었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비정부 기구(NGO)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권창섭** 어떤 저서들을 펴내셨나요?

**박갑수** 퇴임 이후 출판한 책이 세어 보니 7종 9책이더군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성찰》(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고전 문학의 문체와 표현》(집문당, 2005), 《한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역락, 2012), 《한국어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역락, 2013), 《재외 동포 교육과 한국어 교육》(역락, 2013),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역락, 2014), 《우리말 우리 문화(상·하)》(역락, 2014), 《재미있는 속담과 인생》(역락, 2015)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교양인을 위한 언어·문학·문화,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의 저작이 총 8종 10책이 되겠네요.

**권창섭** 대단하십니다. 저서를 그 정도로 내셨으면 학술 논문은 더 많이 쓰셨겠어요?

**박갑수** 그렇습니다. 퇴임 이후 쓴 논문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통일 정책” 외에 꼭 90편입니다. 정년 16년 만에 90편을 썼으니 많이 쓴 셈이지요?

**권창섭** 저술 활동만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활동들도 하시면서 10권의 저서에 90편의 논문이라니,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하시며 퇴임 이후를 보내셨는지요?

**박갑수** 이중언어학회,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등의 학회장도 역임했어요. 재임하는 동안 한국 언어문화 선양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고요.

**권창섭** 지금은 임기가 끝나셨지요?

**박갑수** 네. 끝난 지 오래되었죠.

**권창섭** 비정부 기구 활동도 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갑수** 한국의 언어문화를 국제화하는 비정부 기구의 간부를 맡아 연구와 연수 활동을 활발히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상임 대표를 맡아 아프리카를 제외한 4대주의 많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특강과 연수 활동을 했고, 한국문화국제교류본부라는 곳의 이사장을 맡아 한국 문화 국제화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권창섭**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국문화국제교류본부에서 하신 일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박갑수**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각 중·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정규 교과 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음의 목표였습니다. ‘한국어’만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 태권도와 함께 교과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태권도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일을 진행해 보니 쉽게 이뤄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틀에서 국어와 한국 문화를 선양하고 보급하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권창섭** 가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갑수** 실질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한국어를 채택하게 한 일인데, 사실 이는 몇 학교밖에 성공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들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게도 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을 위한 교육 활동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국외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해 잘 알아야 하니까요.

**권창섭** 지금은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박갑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인력들이 독일로 건너가 광부나 간호사 등으로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독일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파크’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권창섭** 너무 연구와 대외 활동만 열심히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가는 즐기지 않으셨나요?

**박갑수**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서 토요일마다 관악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못 갔습니다. 근자에 백두산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작년엔 다롄(大連)의 학술 대회에 참가한 후 단둥(丹東)을 거쳐 정상까지 올라갔지요.

## 문체론,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과정들

**권창섭** 선생님께서 처음 국어학 연구를 시작할 즈음에는 한국어학계에 ‘문체론’ 분야는 아직 미개척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박갑수** 그랬습니다.

**권창섭** 그런데 어떻게 문체론이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박갑수** 일본학자 하다노 간지(波多野完治)의 《문장심리학 입문》이

라는 책을 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참 흥미롭더라고요. 여러 한국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심리학 대계》(전 5권)라는 책을 보면서 문장심리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에 1969년에 일본 정부 초청으로 1년 반가량 일본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문체론 연구를 시작하였죠.

**권창섭** 당시 학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문체론’은 우리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생소한 관점이었는데…….

**박갑수**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에 조선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한국학 연구 학회이지요. 그곳에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것을 취재해서 기사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창섭** 당시만 해도 역사언어학적인 관점이 주된 연구 방향 아니었습니까?

**박갑수** 그렇죠. 국어사적인 연구와 음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다른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법에 대한 관심도 덜했지요. 그러니 의미나 문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권창섭** 문체 연구를 위해서 문학 작품도 매우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박갑수** 그럼요. 제 연구의 제1차 자료가 문학 텍스트였으니까요. 특별히 제가 많이 읽은 텍스트가 삼성당에서 펴낸 ‘한국단편소설전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작가 100여 명의 작품을 보고 각자의 문체가 어

---

1) 일본의 언어학에서는 ‘문체론’이란 용어 이전에 ‘문장심리학’이란 용어를 더 흔히 사용했다고 한다.

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권창섭** 작가마다 문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한국 소설 전반의 문체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갑수** 오래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니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 문장의 글자, 음절 수가 평균 31자 정도였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중간값은 약 17자 정도였고요. 아주 길게 문장을 쓰는 작가들은 음절의 수가 200~300자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창섭** 내용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특성을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갑수** 소설에서 특정 인물이 나타날 때, 먼저 그 인물의 얼굴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하는 방법도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서양의 문학 작품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이마로, 이마에서 눈썹으로,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묘사가 전통적인 방식이죠. 한국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묘사에 전체적인 묘사와 분석적인 묘사가 있다면, 한국의 소설들은 전체적인 묘사가 중심이 되고요, 분석적인 묘사를 할 때는 눈을 중심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서 그 사람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죠.

**권창섭** 선생님의 저서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박갑수** 네. 문체론과 관련해서는 7, 8권의 단독 저서를 냈습니다.<sup>2)</sup> 학

---

2) 박갑수 선생의 문체론 관련 저서로는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언어론》, 《현대 문학의 문체와 표현》, 《신문광고의 문체와 표현》,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고전 문학의 문체와 표현》,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출간 연도 순) 등이 있다.

계에서는 제가 문체론을 도입, 정착시켰다고 과찬하지만, 남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손을 대어 약간의 저작물을 낸 것뿐입니다.

**권창섭** 문체론뿐 아니라 국어 교육 분야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갑수** 사범대학을 나왔고, 사범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어 국어학을 하면서 자연히 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하게 되었죠. 1973년 방송통신대학 교재 《초등학교 국어 교육》을 공저한 것이 처음 국어 교육 관계 저서를 낸 것이고, 이어 1975년에 《국어과 교육》에 평가를 집필하셨습니다. 이후 《국어 교육》(1976), 《국어과 교육 I》(1982), 《국어과 교육 II》(1982)를 공저하였고, 2005년에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성찰》을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냈습니다.

**권창섭** 연구하고 저서를 내는 일 외에도 정책과 교재 개발 분야에서도 활동하셨지요?

**박갑수** 문교부<sup>3)</sup>의 교육 과정 심의위원 등 정책 결정에 참여했고, 국정 교과서 개발위원장을 맡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그를 위한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도 하였고요. ‘국문법’과 ‘국문학사’ 교과서도 개발하여 국정 교과서로 간행했습니다. 김인정 교과서 개발에도 참여를 많이 하였고요. 제가 참여해 개발한 중·고교 김인정 교과서만도 10여 종에 이릅니다.

**권창섭** 국어 교육의 이론뿐 아니라 현장 교육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네요. 교과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탄 길로 빠져 보겠습니다. 최근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데, 국어과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현재 교육부.



**박갑수** 국정화 시절부터 국어 교육계에서는 계속 국정화를 해지하고  
검인정 제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  
익어 김영삼 대통령 때 검인정 제도로 바뀔 뻔했다가 안타깝게 성사되  
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근자  
에 검인정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땅히 검인정 제도여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교육 방식이 공존해야 합니다. 소정의 교육 과정  
을 이수하였는지를 특정한 교과서 하나를 공부했는지로 평가할 수는  
없지요. 특정한 교과서 하나로 어떤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어과를 국정 교과서로 환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창섭**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박갑수** 재외 동포는 한국 국적의 동포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를 교포 또는 재외 국민이라 하  
고, 후자를 외국 국적 동포라 하지요. 교포에게는 국어 교육을 해야 합  
니다. 그래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는 이들을 위해 해외 연수 교  
육을 많이 하였는데, 제가 상임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지에 나가  
특강과 연수 교육을 많이 하였지요. 또 이들을 초청하여 연수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우리말  
을,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데 다소나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창섭**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하 한국어 교육)에도 일찍부터 관심  
을 가지고 업적을 쌓아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갑수** 1969년에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고 했지요? 그  
때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  
다. 이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지요. 나아가 이중언어학회 창립에 앞장섰고요. 또 외국의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덴리대학, 스쿠바대학(筑波大學), 중국의 낙양외국어대학(洛陽外國語大學) 등에 초빙 교수로 가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강의하였죠.

**권창섭**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언어 교수 이론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을 듯한데요?

**박갑수** 서양의 이론들은 있었지만 한국어에 특수화된 이론은 없었지요. 서양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접목해 보면서 한국어 교육에 걸맞은 이론을 만들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도 새로운 무엇이 나왔다고 말하긴 힘들습니다. 서양 이론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셈이지요. 계속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창섭**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지요?

**박갑수** 현재 정부에서 치르고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몇 차례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서, 시작할 때부터 2005년까지 자문위원장직을 맡아 했지요.

**권창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갑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은 1996년 사범대학 학장을 설득해 과정 개설을 추진했는데, 대학 본부에서 비토당했습니다.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를 모르는 본부에서 ‘지도자 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침 당시는 서울대학교 안의 여러 연구소나 특수 과

정을 정리하는 때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미 교육개발원에도 원장에게 건의해 이 과정을 만들기로 합의를 본 바 있었는데, 교육개발원보다는 서울대학교에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학장을 앞세워 재차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들을 꾸준히 설득했죠. 그렇게 재추진한 결과, 1997년 총장 승인을 받고 그해 5월 제1기 과정생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은 3:1이었고, 응모생은 본부의 염려와는 달리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광고를 내며 응시생의 조건으로는 외국어 한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 외국 경험자들이 많이 응모했던 것이고, 덕분에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기관의 단기 연수와는 달리 1년이란 장기 과정으로 철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의 ‘지도자 과정’은 명성을 얻게 되었죠. 2015년 제19기생을 배출해 냈으로써 약 1,000명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길러 낸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연구》라는 논문집을 내고 있는데, 2015년 제19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 드리면 창간호부터 제19집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제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사실로 추단되고 있습니다. 2016년 20주년 논문집 제20호에도 글을 쓰려 합니다. 그러면 20편이 되지요. 2015년 10월 15일 간행된 제19집에는 “환경언어와 한국어권 커뮤니케이션-공간언어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 연변대 과기학원 인문과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학술 대회에서 10월 30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공감과 여유를 필요로 하는 국어 정책이 되어야

**권창섭** 아무래도 사범대학을 나오시고 또 사범대학에서 재직하시다 보니 국어 순화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박갑수** 특별히 일본의 국어 순화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 서양 문물이 자연스레 네덜란드어와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그 문물의 이름이나 각종 개념을 가능한 한 번역 차용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어휘가 새로 생겨나고 근대어가 형성되었지요.

차용은 크게 번역 차용의 방법과 원음 차용의 두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전기(電氣)’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서구어를 번역 차용한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 것이죠. 한편 중국에서는 이를 ‘월력(越曆)’이라는 한자로 만들었죠.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발음을 차용하여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나중에는 결국 ‘월력(越曆)’을 버리고 일본의 ‘전기(電氣)’를 취하게 되었어요.

**권창섭** 일본에서도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갑수** 영어의 ‘위크(week)’에 해당하는 ‘주(週)’라는 한자어가 있지요? 일단 그 당시 일본에서는 7일을 기준으로 순회가 되고 그것이 한 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용어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위크’라는 것을 ‘일주일(一週日)’, ‘주(週)’란 것으로 번역 차용한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 만에 정착이 되었을까요?

**권창섭** 저한테 질문하신 뜻은 매우 오래 걸렸다는 뜻이시겠지요?

**박갑수**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5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수용

할 때는 번역 차용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수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바심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의 버스 승차권이었던 ‘토큰(token)’이란 것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이를 당시 국어심의회에서 ‘쇠돈’이란 말로 바꾸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중에게는 ‘토큰’이란 어휘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일반화한 어휘이니 새로운 용어를 내놓아도 먹혀들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어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휘가 정착되기 전에 순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권창섭** 정착되지 않은 ‘위크’를 대체하는 데도 50년이 걸렸다는데, 이미 굳어져 버린 ‘토큰’을 대뜸 대체할 수는 없었겠네요.

**박갑수** 또 다른 예로 영국을 들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이 영국을 장악한 이후 영국의 언어가 계층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귀족과 상위 계층은 로망스어를 사용하고 일반 민중은 게르만 계통의 언어, 즉 지금의 영어를 사용하였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언어가 다른 이중 언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게 11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 가량 지속됩니다. 그동안 영어는 학문 용어나 정치 용어, 사교 용어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죠. 사경을 헤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등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 1362년에 국회에서 영어로 개원을 하고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가 됩니다. 비로소 영어가 공식 언어로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나와 영어의 위상을 높이고 또 순화와 고양을 위한 그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영어의 세계적 지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영어에도 게르만 계통이 아닌 라틴 계통의 어휘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한국어에도 한자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한자어들까지 모두 순화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오고 있는 서구 계통의 외국 어휘들은 순화해야만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생각들로 일찍이 국어 순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국어 순화에 관한 책도 여럿 낸 바 있지요.<sup>4)</sup>

**권창섭** 저서 집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국어 순화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죠?

**박갑수**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을 맡아 전국 주요 도시의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 순화 강연을 하였고 이런저런 방송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KBS, MBC, SBS, 동아방송, 평화방송 등 거의 모든 방송국에 〈우리말 바른말〉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방송들을 통해 국어 순화 운동을 전개했어요. 하도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은사인 심약 이승녕 선생님께선 “방송은 갑수만 하는가 보다.”는 농담도 하셨어요. 전에 한갑수 선생이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웃음)

이외에도 문체부의 국어 심의위원,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참여해서 국어 순화와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방송 심의위원, 광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마스크임 언어를 순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1993년에는 문체부<sup>5)</sup>의 의뢰를 받아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광고 언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 언어의 사용 기준”을 마련한 적 있는데, 이는 뒤에 광고 심의 기준으로 원용되었습니다.

**권창섭** 최근 서구권에서 들어온 외국어 어휘에 대해 순화 작업을 꼭 해

---

4) 《우리말의 허상과 실상》(1983),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1984), 《국어 오용과 순화》(1984), 《광고 언어의 사용 기준》(1993), 《우리말 바로 써야 한다(1, 2, 3)》(1995), 《민사소송법의 순화 연구》(1997),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1997) 등.

5) 당시는 공보처.

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미 정착된 어휘들도 많을뿐더러 내놓은 순화어들이 해당 외국어 어휘의 역할을 잘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어 순화가 계속 이어져야 할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잘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갑수** 외래어나 외국어 어휘가 들어오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적 동기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세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필요적 동기라 함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필요해 쓰는 것이지요. 위세적 동기에 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어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혹은 “리서치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위세적 동기로 들어온 외국어 어휘가 많단 말이지요.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어휘가 없는 경우는 외래어, 외국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어 순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세적 동기에 의한 것, 우리말에도 그에 해당하는 어휘가 있는데도 굳이 외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것들은 지양해야겠지요.

국어 순화의 움직임이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쓰는 말이라고 다 배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것이지요. ‘결혼(結婚)’이란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이므로 쓰면 안 되고 우리말인 ‘혼인(婚姻)’을 써야 한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말은 《삼국유사》에 이미 등장하는 한자 말입니다.

**권창섭** ‘야채(野菜)’도 비슷한 경우겠네요. 그것은 일본에서 온 말이므로 우린 ‘채소(菜蔬)’라고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박갑수** 네. 그렇죠. ‘야채’도 조선 이전부터 써 오던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야채’나 마침 일본에서도 쓰고 있을 뿐이지요.

**권창섭** 저도 국어 순화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나 ‘땃글’, ‘누리꾼’과 같은 분명한 성공 사례도 있으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의 ‘일주일’, ‘주’와 같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듯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니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갑수** 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대체 어휘를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놓아선 될 일도 안 되겠지요. 언중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어휘를 내놓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은 사그라들었지만 한때 영어 공용화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죠. 앞서 말한 영국도 그랬듯이 그렇게 되면 영어를 쓰는 계층과 한국어를 쓰는 계층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시에 상류 지향 의식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들 영어를 지향하게 되고 한국어는 쇠퇴하게 되겠지요.

**권창섭** 외래어 및 외국어의 순화도 중요하겠지만 언중과 가장 직결한 문제가 너무 어렵고 알아듣기 힘든 공공 언어의 순화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갑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 언어에는 일본어를 직역해 놓은 어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쓰지도 않는 표현들이 산적해 있었죠. 이에선 어휘 차원의 교정이 아닌 문장 차원의 교정이 필요합니



다. 저는 법제처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법률 제정에 참여하여 순화된 국어를 쓰도록 한 바 있습니다. 언중과 가장 밀접한 법이 민사와 관련된 법일 텐데, 대법원의 위탁을 받아 민사소송법을 순화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일본어에 찌들어 있었는데, 제가 마련한 순화 작업이 바탕이 되어 새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권창섭**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자 교육이 부활하려는 모습인데요.

**박갑수** 반세기만에 한자 교육이 부활되려 하죠. 정부에서 2018년부터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니까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자 교육 그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가 현안입니다.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의 생각은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권창섭**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박갑수** 국어에는 동음이의의 한자어들, 그리고 음운 변동에 의한 동음이의의 한자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생활의 혼란을 막고, 문식성(文識性)과 변별성(辨別性)을 증대하기 위해 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어요.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국어의 학습 효과도 촉진하므로 한자 교육은 필요합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자 문화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자어에는 지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지적 개념을 많이 습득하고 이해하려면 한자와 한자어를 많이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한자 교육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 할 수 있지요. 근래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이 한자 교육을 찬성하고

있어요.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이론상 타당하고 여론이 찬성하고 있으니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게다가 앞으로 중국이 더욱 부상하고 한중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자 사용의 경향은 자꾸만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한자 교육은 수행되어야 마땅합니다.

## 언어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권창섭**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의 문체 연구,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 깊고 넓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현재 후학들의 연구와 관련하여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문체론 연구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나 격려하고 싶은 점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갑수** 제가 문체론을 도입, 정착시켰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문체론 연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 안타깝습니다. 학점 제한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과목 개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은 형식과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어문화도 마찬가지죠. 언어문화의 경우에도 내용과 주제가 있고,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과 주제 연구에 주로 관심을 두고 표현 형식은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도 일본의 문인들이 형식을 등한히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도 언어문화의 내용과 주제뿐 아니라 표현 형식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창섭** 문체론이나 문장론은 확장성도 높은 분야일 것 같은데요. 글쓰

기 교육이나 말하기 교육 영역으로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라 생각합니다. 국어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아쉬운 부분이나 격려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박갑수** 국어 교육학은 그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국어 교육학의 1세대는 본격적으로 국어 교육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어학을 하며 국어 교육은 덤으로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국어 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내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어 교육계의 현실을 보면 실용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어 교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용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권창섭** 그 말씀을 듣고 과거를 돌아보니 저 역시도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를 개별적으로 학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말하기와 듣기가 아니라 왜 둘을 따로 떼어 놓고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어렵듯이 한 것 같아요.

**박갑수** 그럼요. 그렇게 고리를 지어 연계되어야 커뮤니케이션이고 국어 교육이죠. 어떤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국어 교육은 그 고리를 교육하지 않고 그저 말하기 기능, 듣기 기능, 읽기 기능, 쓰기 기능을 교육하고 있는 셈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발현됩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 사고의 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도 미진합니다.

**권창섭**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주된 평

가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어 교육학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갑수** 한국어 교육학은 역사는 짧지만, 빠르게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하였지요. 언어 교육은 곧 문화교육입니다. 더구나 외국어 교육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첫 시간부터 곧 문화 교육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문화의 색인’이라는 말도 있듯,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지요. 문화를 모르거는 진정한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 교육적 측면이 많이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한 개의 어휘를 배우더라도 문화적 배경과 함께 배움으로써 그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문화 교육을 일방적인 형태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상호 교류하는 교육이 되어야겠지요.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문화를 상호 교류할 때 서로 친근해지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협동하며 사는 것이듯,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창섭**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박갑수** 건강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 총서로 3권을 이미 출간한 바 있고, 그보다 전에 한국어 교육 관련 서적을 1권 낸 바 있어 총 4권의 한국어 교육 관련 저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서 다섯 권으로 총서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서 전집을 내주겠다는 제의가 있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발표한 논문들을 묶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국어 순화와 법

를》이라는 제목의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인데요,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 특히 어휘에 반영된 문화를 고구하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2년 내에 《재미있는 결말 기행》이란 책을 내려 합니다. ‘결말’이란 우리 고유한 수사법인데 그동안 이를 연구 수집하여 잡지에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월간 중앙》에 ‘결말의 재미’라고 하여 연재한 적이 있고, 지금은 《한글+한자문화》에 ‘결말 기행’이라고 하여 3년을 연재해 왔습니다. 곧 400~500여 쪽의 책으로 묶어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창섭** 꾸준한 연구 계획을 앞두고 계시네요. 존경스럽고 또한 부럽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까 염려됩니다. 좀 더 여유를 누리고 여가를 즐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갑수** 제 아내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좀 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책 한 권 더 낸다고 얼마나 더 훌륭한 학자가 되겠냐고 하는데…….(웃음) 제가 하던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앞으로 이런 걸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쉬어 가면서 할 필요는 있겠죠.

**권창섭** 원래 활동해 오시던 비정부 기구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십니까?

**박갑수** 고문으로 물러났으니 실질적인 활동은 이제 접었다고 봐야죠. 다음 세대가 실질적인 작업들을 하고 저는 가끔 필요할 때 조언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권창섭** 오랜 시간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종문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박갑수**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